



장진설

부국사료(주) 대표이사

“ 총체적인 사료비 절감 방안 ”

지금 세계의 사료원료 시장은 거친 바다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사료원료들을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하면서 시작된 국제 곡물시세의 상승은 아직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의 수요도 증가되어 옥수수를 포함한 곡류와 대두박 등 모든 사료원료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요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축산물 및 육류 가격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기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해외자원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 그리고 선물거래 등의 구매방법 다양화와 관세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급등하는 사료원료 가격 및 사료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더 나아가서는 농장의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 정부의 역할

해외 곡물 수입량 세계 5위, 연간 3조원 이상이 배합사료 원료 구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배합사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정부나 민간 주도의 해외 농장 개발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외 자원 생산 기지 구축을 위한 좀 더 확고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해외곡물 생산기지 건설시 고려할 점으로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 및 물류 인프라(도로, 항만 등) 확보와 해당 국가의 계약 파기 시 대책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결과제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조사하여 그 협력 기관과의 신뢰도 구축은 물론 해당 국가의 왕족, 군부 그리고 실세 인물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안정적인 곡물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종전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물류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 해당 국가의 경우엔 그 나라의 기간 산업 구

축이라는 대의를 실현시켜 주고, 우리의 경우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정부의 차관 지원을 통한 해당 국가와의 상생관계 구축이 무난한 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당 국가가 선정되었다면 토지 임대 방식을 통한 곡물을 직접 경작하는 방식만이 안정된 품질의 사료 원료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 법인 형태의 “곡물유통법인회사”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 정부 30%, 민간기업 70%)

이 곡물유통법인회사는 현지 정부와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수확된 곡물을 포함, 현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곡물을 매입하여 건조 및 보관은 물론 국내 운송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곡물의 매입 및 건조, 보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살모넬라 등의 오염원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해당 국가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으로 정부의 원금 보존 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업체의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총괄하는 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업무 결정과 소신 있는 일처리를 위해 기존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책임 전가에 대한 불신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해외 곡물 생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업계의 역할

지금까지 우리 사료업계는 한정된 시장 속에서 과잉경쟁을 지속해 온 결과, 해바라기

식 해외 곡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영원한 고객들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사료업계 구성원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지고 뼈를 깎는 원가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

현재 옥수수·대두박 중심의 기본적인 배합비에서 탈피하여 사용 가능한 원료의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들 원료 수입도 미국산 위주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다변화시켜 원료 자체 가격과 선임 등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단, 철저한 검증을 위해 현지에서 검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들 원료를 포함한 다양한 원료들은 한국사료협회가 주관하여 1차적인 원료 분석 및 원료에 대한 사료가치 평가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싶다.

또한 각 사료회사별, 구매단체별로 분산 수입하고 있는 원료 구매 방식을 국내 사용량을 감안한 일괄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해외 현지 협회나 기관과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 교섭력 강화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는 한국사료협회가 주관이 되어 “사료 원료구매위원회”에 그 역할을 부여하여 구매 횟수의 집중화, 물량의 대량화를 통한 다양한 원료를 좀 더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배합사료 업계가 공통으로 직시하고 있는 물류 체계 개선 문제나 인적 자원의 공동 개발 노력 등도 사료업계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원가절감의 한 부분으로 부각시켜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 농장의 역할

실질적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한 가장 근본 대책은 농장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본에 충실한 사양관리를 주문하곤 한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답은 각 농장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양관리에 있다고 본다.

툭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농장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마모된 곳은 없는지, 누수되는 배관이나 급이라인은 없는지 찾아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일은 바로 농장주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사료 허실을 막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양돈의 경우 6%의 사료허실량을 2%로 줄이면 약 10kg의 사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급이기의 간격 조정 불량 또는 급이기 자체의 불량, 그리고 어린 돼지일수록 투쟁이나 급이기 안에 들어가는 경향으로 허실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철저한 사료 급이 관리 및 확인이 요구된다.

또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잘 키우면 반 이상을 잘 키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초생주나 갓난돼지의 소화기관 발달과 용량 증가는 곧 폐사율 감소와 사료효율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료비를 절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양돈에서 0.1 사료효율 개선이 약 10kg의 사료를 절감시킬 수 있다. 사료섭취량이 우수하고 소화가 양호한 자축 사료 선택과 환경적인 스트레스 감소 관리가 더욱 더 절실한 시기이다.

많은 사료회사들의 단계별 권장 프로그램은 젖돈-육성돈-비육돈 사료 급여를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싼 젖돈 사료 급여만으로 출하가 빨라지길 기대하는 모험은 이제 삼가야 할 때다.

일례로 젖돈과 육성돈, 그리고 비육돈 사

료로 교체시 적절하게 혼합 급여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돼지 성장단계에 맞는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 사료 교체시 받을 수 있는 체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사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란계 농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산란초기 사료의 과잉 급여로 인한 지방계 발생 증가 및 노계의 과도한 영양 공급도 하루 빨리 사양관리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계절별 기후 변화가 큰 국내의 환경 조건을 고려한 한국형 종돈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트레인 종돈은 사료 섭취량은 낮지만, 매우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체중과 일령, 암수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고 영양소 요구량이 다르므로, 균일성 있는 사양관리, 사육 단계별 적합한 사료 급여, 암수분리 사육을 통한 최적의 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축산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필자가 느낀 바는 생물을 다루는 축산업의 시장 동향은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게 사실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움직이는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현실의 큰 파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듯 싶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생산성 개선과 원가 절감이라는 자구 노력의 여지가 있다. 이를 통해 가파른 사료비 상승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가 지속 가능한 우리의 고급 먹거리 생산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하는 바램을 전하고자 한다.☑